

Maison

30 ANNIVERSARY

marie claire

2024 MARCH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건축가 알레시아 가리발디가 만든
밀라노 주택

HOTEL

세계적 디자이너들이 만든
호텔 리스트

SHOPPING

봄 데코레이션을 위한
추천 아이템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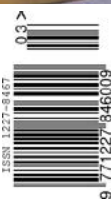
INTERIOR

글래드스톤 디렉터의 집
신경옥, 집으로부터
스탠딩 에그의 알토 하우스

PARIS DESIGN REPORT

2024 메종&오브제 이슈, 패브릭 축제 트렌드, 메르시 CEO 인터뷰

정가 9,000원



INTERIOR/IRELAND

핑크색의 코스모폴리탄 규암 스톤과
빨간 셰리나무 캐비닛이 어우러진 주방.



1 아일랜드 디자인 스튜디오 KLD를 이끄는 디자이너 로진 레퍼티.
2 주방 입구에서 바라본 1층 라운지.

Nature Fantasy

다채로운 컬러와 소재를 사용해 아일랜드의 자연색으로 물들인 그린 하우스.

EDITOR 원하영 PHOTOGRAPHER 루스 마리아 머피 Ruth Maria Murphy





1 버건디 컬러와 짙은 녹색의 대리석, 따뜻한 오크 톤 목재가 어우러진 공간. 2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이 집의 중심 컬러인 짙은 녹색으로 페인팅했다. 3, 4 '알프스의 초목'을 뜻하는 베르데 알피 대리석을 사용한 거실, 라운지 체어만 배치한 침기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아일랜드 푸른 자연의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짙은 녹색 대리석을 사용한 거실. 버건디 컬러의 루버 목재와 우아하게 대비된다.



"이 도시의 첫인상을 담아내고자 했어요. 문을 열면 풍부한 녹색의 대리석이 반겨주죠. 푸른 이끼와 나무의 무성함, 깊고도 짙은 자연의 색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어요." 그야말로 초록의 나라다. 에메랄드빛 들판과 아이리시 바다가 펼쳐지는 아일랜드의 남서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코크 Cork는 푸른 자연으로 둘러싸인 경치가 유명하다. 더블린 기반의 디자인 스튜디오 킹스턴 래퍼티 디자인 Kingston Lafferty Design의 인테리어나 디자이너 로진 래퍼티 Róisín Lafferty는 오랜 시간 카타르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가족을 위해 처음 이 집을 방문한 날을 회상했다. "따뜻한 톤의 참나무로 문과 벽이 둘러싸여 있는 260㎡의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1970년대 집의 강렬한 첫인상을 반전시키는 것에서부터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과감한 소재와 색상을 사용한 이유예요." 리모델링 초기에는 소규모의 데커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려 했으나, 작업을 하면서 구조적인 불안함과 기초 단열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결국 모든 층을 완전히 들어낸 뒤 구조 설계부터 다시 시작했다. 기존 오크 톤 계단은 보수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 포근하게 반겨주던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레이아웃을 변경하며 계단 중심으로 층마다 방이 뻗어나가듯 배치했다. 방과 방을 오가며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집을 상상했다. 각기 다른 색으로 물든 방은 더욱 풍부한 여행지의 감상을 자아낸다.

다채로운 컬러가 어우러지지만 중심이 되는 색은 녹색이다. 푸른 주변 경치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집 내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현관 복도에는 길이감이 느껴지는 짙은 녹색 대리석을 사용했다. 대리석의 풍부한 톤과 곁은 주변 경치의 풍요로움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라운지에는 또 다른 녹색 대리석을 사용해 메인 벽을 완성했다. 디자이너 로진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독일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 Mies van der Rohe의 바르셀로나 피빌리온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곳의 자연 풍경을 마주하지마자 볼드한 대리석 벽면으로



4



모더니즘 디자인을 선보인 그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텔레비전은 감추고, 반대편에는 황동과 가죽, 호두나무를 사용해 직접 제작한 캐비닛을 배치했다. 안쪽으로 이어지는 주방은 핑크색 규암 대리석을 사용해 녹색과 대비되는 강력한 포인트를 줬다. 의도적인 충돌은 미묘한 균형을 만들어 매력을 더한다. 로진이 가장 신경 쓴 곳은 부부 공간인 마스터 스위트룸이다. 라운지에는 늘처럼 깊이감 있는 짙은 초록색을 사용했다면, 침실에는 밝은 연두색 타일로 완성했다. 사선형의 다락 지붕 아래에 자리한 침실에서는 독특한 패턴의 목재로 만든 옷장이 먼저 반겨준다. 마치 아트월 같은 옷장은 벽 대신 공간을 구획해 자연스럽게 복도를 만든다. 안쪽으로는 다양한 소재가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벽면에는 입체감이 살아 있는 타일을 사용하고, 창문 아래에는 녹색과 대비되는 붉은 패브릭을 사용한 벤치를 제작했다. 침대 아래의 두꺼운 키펫은 목재 패널로 마감한 벽과 바닥, 그리고 따뜻한 촉감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간다. 각각의 소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명확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고민했다.

다채로운 소재의 향연은 클라이언트를 일상 생활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데려다줄 예상치 못한 안식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집에서 살아갈 이들이 매일 행복하기 바라며 디자인했어요. 실제로 이사한 뒤 부부는 우리에게 '이 집은 다양한 색상과 소재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평온한 안식처처럼 느껴진다. 정말 멋진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의도한 디자인이 달성되어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었죠." ㉞

1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를 즐길 수 있는 집. 2층 마스터 침실 창 아래에는 버건디 대리석으로 제작한 데스크와 오렌지 컬러 칠러 벤치를 구성했다. 2 전한 코발트블루로 대담하게 채운 게스트룸. 3 제이드그린 칠러와 원형 디자인으로 발랄함을 더한 아이방.



INTERIOR/IRELAND



다양한 소재로 완성한 호화로운 줄거움. 입체적인 연두색 타일과 오렌지색 패브릭으로 마감한 벽, 풍부한 대리석으로 제작한 데스크와 캐비닛, 저 멀리 독특한 패턴의 우드 패널로 마감한 옷장이 보인다.